

'꽃·빛 향연' 장성 황룡강 체류형 명소 각광

5월 열린 홍길동무 축제 누적 방문객 22만7천여명 낮엔 봄꽃·밤엔 야경 등 볼거리 가득...지역경제 보탬

100억 송이 봄꽃과 수려한 야경을 지닌 장성 황룡강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마무리된 '장성 황룡강 홍(홍)길동무 꽃길축제(이하 길동무 꽃길축제)'에서 그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6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홍(홍)길동무 꽃길축제는 강변 10리 길을 물들이 봄꽃과 환상적인 야간 조명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꽃 중에는 강가를 화사하게 장식한 꽃양귀비를 비롯해 장미, 백일홍, 사스타 데이지 등이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서삼장미터널과 생태공원 수곡터널은 사진촬영 명소로 꼽혔다.

해가 기울고 나면 강변 곳곳에 조명

이 켜졌다. 특히 미디어 조명이 설치된 문화대교와 용작교 아래 조형물은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난해 가을 조성한 종합운동장 플라워터널과 함께 '황룡강 야경 3부작'을 완성했다.

봄꽃과 야경을 고루 갖췄다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방문이 이어졌다. 군에 따르면 길동무 꽃길축제 기간 누적 방문객 수는 22만7천여명으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됐다. 먹거리와 농특산물 판매 수익만 1억6천900만원에 달했다.

'체험'도 호평을 얻었다. 홍길동 테마파크에 마련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은 가족여행 코스로 입소문이 나며 축제기간 내내 문전성시를 이뤘다. 첫날 500명

에는 하루 4천100명까지 늘었다.

한편 축제와 함께 뜻깊은 행사도 열려 이목을 끌었다.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선 '남도음식영화토크쇼'가 열려 황해림 서울국제음식영화제 프로듀서와 주연하 음식 인문학자, 김현진 남도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이 음식을 주제로 한 단편영화 상영회와 대담을 가졌다.

지난달 19~20일에는 무려 12년 만에 장성에서 '남도국악제'가 열렸다. 첫째마당에는 고수, 남도민요, 판소리, 무용부문 경연이 진행됐고 둘째마당에선 축하공연과 농악 경연 등이 신명나게 펼쳐졌다.

김한중 군수는 "축제를 찾아준 방문객과 축제 준비에 헌신적으로 나선 주민, 공직자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꽃과 빛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황룡강을 시작으로, 장성만의 매력을 더해갈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김문태기자



장성군이 올해 추진한 홍길동무 꽃길축제에 붉은 꽃양귀비가 강변을 따라 장관을 이뤄 사진 명소로 주목받았다. <장성군 제공>

광양시 '도선국사 문화관광벨트' 조성 박차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하드·소프트웨어 등 설명 청취

광양시가 글로벌 생태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백운산 권역에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주순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 지역 주민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선국사 문화관광벨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보고회는 지난해 9월 착수보고회 이후 현장 조사, 관계부서 회의, 이해관계자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 발굴된 총 15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백운산 권역 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 발굴된 15개 사업은 ▲글로벌 풍수마을, 동백 포레스트 가든 등 5개 하드웨어 ▲특화형 야간관광 콘텐츠 구축, 도선 인물 자원화·성지화 등 4개 소프트



웨어 ▲광양백운열차, 탄소 제로 스마트 모빌리티 등 6개 연계 콘텐츠 등이 다.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은 "이번 중간보고회는 현재까지 발굴된 주요 사업 내용을 중간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최종 단계에서 내실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줬으면 한다"며 "광양시가 가진 다양한 도선 콘텐츠를 이용해 백운산 권역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양=양홍렬기자

한편 도선국사 문화관광벨트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광양 읍용사지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ESG 관광사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백운산 권역의 문화유산과 우수한 경관을 보호하고 섬진강, 구봉산 권역을 연계하는 힐링 생태관광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자문위원과 전문가, 주요 기관 단체, 관계부서 등 다자간 지속적 협의를 통해 도선국사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과업수행을 오는 9월 중 마무리하고 전남도와 협력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 다. /광양=양홍렬기자

'여수시장배 e스포츠대회' 내달 첫 개최

흥국체육관서 4강전·결선...23일까지 참가자 모집

'여수시장배 e스포츠대회'가 오는 7월 20~30일 흥국체육관에서 열린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건강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처음 선보이며, 관내 청소년과 전남·광주 소재 대학생이면 가능하다. 단, 접수는 총 128팀 352명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대회는 ▲리그 오브 레전드(6인 단체전) ▲피파온라인4(4인 단체전) ▲배틀그라운드(4인 단체전) 등 3개 종목으로 나뉘어 치러진다.

참가자들은 7월 8~22일 매주 주말 온라인 예선전을 치르며 4강전과 결선전은 같은 달 20~30일 흥국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이달 23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청소년의 경우 학교대항전으로 학교 당 종목별 2팀 이내 ▲대학부의 경우 e스포츠학과를 제외한 전남·광주 소재 대학생이면 가능하다.

대회는 ▲리그 오브 레전드(6인 단체전) ▲피파온라인4(4인 단체전) ▲배틀그라운드(4인 단체전) 등 3개 종목으로 나뉘어 치러진다.

결선전이 열리는 흥국체육관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억의 오락실·유투브 크리에이터·코스프레·캐릭터 페이스페인팅·캐릭터 헤어뷰



티·즉석사진·보드게임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채널 '여수시장배 e스포츠대회'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진선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명예의전당' 개설

구례군, 홈페이지에 500만원 기부자 이름 등 게시

구례군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군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6일 밝혔다.

개설 목적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사랑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함이다. 구례군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명예의 전당은 개인의

기부 최대한도인 500만원을 기탁한 기부자의 이름과 소속을 게시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군 홈페이지 내 고향사랑기부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군에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기부자들에게 감사하다"며 "기부자들의 마음이 군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기자

고흥군 '숲길 따라 떠나는 마음 산책' 운영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서 10월까지 산림욕 체조 등 10회

고흥군은 6일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에서 마음 힐링이 필요한 군민을 대상으로 '숲길 따라 떠나는 마음 산책' 프로그램을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산림의 다양한 환경 요소를 활용한 심신의 안정과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했으며 우울·불안·질병 치료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이 있거나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정신건강 힐링을 위한 '마음산책'은 군민 200명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운영되며 산림치유지도사의 동행하에 진행되는 숲 치유 프로그램(산림욕 체조, 오감 열고 숲길 걷기, 명상 치유 등)과

유자·석류·편백을 이용한 수(水)치유 등으로 운영된다.

또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 분석기를 활용한 뇌파 스트레스 검사와 우울선별검사도 진행해 필요 시 고흥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정신건강 전문상담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의와



고흥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에서 '숲길 따라 떠나는 마음 산책'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고흥=최봉환기자

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9월까지 무주택 전·월세 거주 근로 청년 대상

화순군은 6일 "오는 9월까지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최대 월 10만원씩 12개

월 간 지원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한다.

추가 모집 규모는 13명이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서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중

상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자연 속에서 진행되는 정신건강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잠시나마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 산책이 되길 바라며 지역 내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061-830-6625)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최봉환기자

장흥군의회, 군정 주요 현안 집중 점검

제282회 정례회...대형 놀이시설 조성·군민의날개선 방안 등 촉구

장흥군의회의는 6일 "최근 열린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10개 부서에 대한 군정 질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5명의 의원이 참여해 총 19건의 주요 현안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첫 번째로 단상에 오른 홍정범 부의장은 ▲역사와 교육을 연계한 문화관광 프로젝트 제안 ▲효율적인 과학관 관리 및 방문객 유치 방안 ▲대형 놀이 시설 조성 등 아동친화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윤재숙 행정복지위원장은 ▲참여율 저조에 따른 군민의날·보림문화제 행사 개선 방안 ▲출향향우 교류 협력사업 활성화 대책 ▲보육 및 아동 정책 개선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유규림 산업경제위원장은 ▲해동사·반계사 등 북부지역 문화재 관리

방안 ▲효과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특색 있는 인구 유입 정책 개발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백광철 의원은 ▲정경달·마하수 장관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문화 관광 축제 활성화 방향 제시 ▲빈집 매입·임대 등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 제안 ▲대상포진 지원 사업 확대 등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기용 의원은 ▲방촌유물전

시관 전시품 관리 및 활성화 대책 ▲수산물 어판장과 고등어 롤드체인을 연계한 관광지 개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왕윤재 장흥군의회 의장은 "군정 질문을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군민들의 뜻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들로부터 공감받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의회의는 9일까지 군수·부군수 및 11개 부서에 대한 군정질문을 이어간다. /장흥=노형록기자



장흥군의회의는 6일 '최근 열린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10개 부서에 대한 군정 질문을 실시했다. /장흥=노형록기자